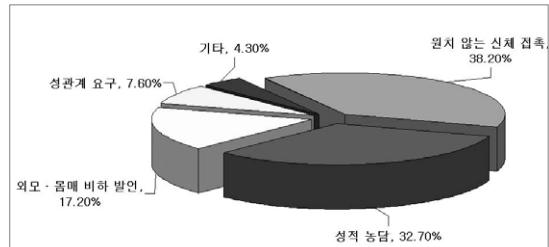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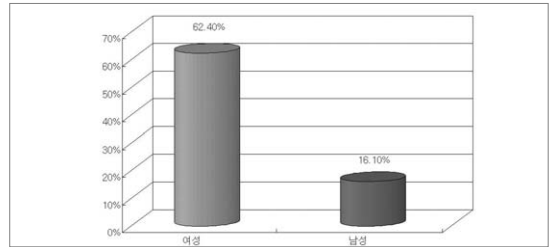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 우리직장에서도 성희롱이...



오늘을 살아가는 셀러리맨들에게 직장에서의 생활은 제2의 삶의 공간이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우리네로서는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은 촌수로 따지면 아마 4촌정도의 친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더러는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다. 이런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단순히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성(性)'이라는 것으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의문스럽다. 성희롱 어쩌면 나의 형제나 사랑 하는 이의 이야기일지 모를 일이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결과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대상으로 직장인 1,2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2.3%(395명)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62.4%(267명), 남성 응답자 16.1%(128명)가 각각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성희롱·또는 성추행 내용으로 ● 원치 않는 신체접촉(38.2%) ● 성적 농담

(32.7%) ● 외모·몸매 비하 발언(17.2%) 등을 들었으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한 가해자로는 직장상사를 꼽은 응답자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동료와 후배를 꼽은 응답자도 각각 16.5%와 3.8%나 되었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36%만이 직장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4.4%가 사내에 성희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추행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여재소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화재사건의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파면당한 사건, 또 모 국회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 등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라는 옛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